

지치지 말고 재림 준비하라

작성일: 2011. 9. 26. 월. 오전 10:22

작성자: 김기자

[글을 적으려고 책상에 앉았으나
글은 적히지 않고 머리만 아팠습니다.
주님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찬양을 한 곡 부르
니
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왔고
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기도했습니다.
기도하니 주님이 보고 싶었고
그로 인해 더 가슴 속이 폭발하듯 뜨거워지자
주님이 오셨습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사랑하는 애인이 있어 지나가다 머물게 되었고
보고파 하는 애인이 있어 잠시 멈추고
그 사랑 나누려고 너와 나 눈이 마주치고
호흡이 통하였도다.

사랑하는 나의 신부여!
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 더 불타고
애절한 것이 신부의 사랑이요,
애인의 사랑인 걸
이 달고 오묘한 사랑 맛을
전 지구촌 모든 자에게 느끼게 하고
맛보게 하고픈데
내가 다가가면 멀리 도망가는 이들 많아
오늘도 내 마음 이리 축축이 젖어 오는구나.

사랑하는 나의 신부여!

(주님이 아가서 3장 11절을 떠 올리게 하시어
성경을 보았습니다.)

아가서 3장 11절
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.
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
씩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.

너희가 더욱 정결하고 청결한
나의 온전한 신부가 되었다면

그날 나의 재림 역시
너희도 나도 아주 기뻐하며
서로가 맞을 수 있겠구나.
재림은 너희와 나 가장 기쁘고 기쁜
대 혼인 잔치하는 날이니
기다리는 너희도 설레고
내 신부 기다리는 나 예수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
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.
나의 재림에 나는 준비된 나의 신부를
신속히 발견하여 신부의 머리에
내 사랑 증표의 면류관을 씌워
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.
난 기다리고 기다린다.
너무 가슴 벅차도록 또 기다리고 기다린다.
너희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장하여
사랑하는 신랑,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
결혼하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듯이
너희와 나 예수 역시도 그동안 준비하고 예비하여
내가 내 신부 데리러 가는 그 재림 날은
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한 이래
가장 대 기쁨의 축제,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.

사랑하는 자들아,
내가 너희를 찾으러 가는 재림을
너희는 그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느냐!
나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다리고 있
느냐?

사랑하는 자들아!
나는 그날만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
감동이 밀려와 기쁨의 감격스러운 눈물이
저 바다를 다 채우는구나.
하늘의 수많은 천사가 너희를 기뻐 축하하며
행진 나팔을 불어 주며 그들은 너희 하객이 되리라.

(다시 주님은 계시록 19장 1절을 스쳐지나 가게 하
셔서
성경을 읽어 보았습니다.)

계시록 19장 1절
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
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
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
우리 하나님께 있도다.

할렐루야!

할렐루야!

하나님의 큰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때이기도 하다.

사랑하는 자들아,

때가 너무 가까이 왔도다.

고로 너희는 재림 주관권 안에서

타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깨어 있으라.

의를 더 쌓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라.

사랑하는 섭리 신부여!

쉬 지치지 말라.

지금 나를 향한 사랑에 불타지 않고 있다면

너희는 이미 재림 맞이에 지친 것이다.

어찌 사랑이 쉬 식어 버릴 수 있단 말이나.

육의 사랑은 수시로 불타고 수시로 식어 버린다.

나와 너희의 사랑은

육의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이니

영적 사랑의 도를 깨닫고

시온의 성에 도달하듯 올라오고 올라와서

너희와 내 사랑에 몰두하고 지켜보자.

사랑하는 섭리 신부여!

무엇을 할까 생각지 말고

신부의 본분인 신랑에 대한 사랑 그릇부터

철철 차고 넘치게 채워 보자.

사랑하는 섭리 신부여!

내 이리 너희를 사랑하여 ‘섭리 신부야’

라고 말하면 더욱 그 사랑에 목말라

목이 메는데 내 사랑 신부들은

나의 이름 ‘예수님’이라고 부르면 목이 메느냐?

아니면 ‘선생님’이라고 부르면 목이 메느냐?

사랑 없인 단 1cm도 너희와 나

가까워질 수도 만날 수도 없다.

사랑하는 섭리 신부여!

난 기다리고 기다린다.

나의 온전한 신부 취하러 가는

그날을 기다린다.

난 반드시 정한 날에 재림한다.

너희가 정한 날이 아닌

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

나 예수는 친히 내 신부 데리러 꼭 간다.

사랑하는 섭리 신부들아!

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.

너희 섭리 신부들은 지난 30년 동안

이 땅에서 육적 휴거되어

선생이라는 내 육 통해

이미 땅에서 신부 역사 혼인잔치를

아주 거하게 성대하게 치렀다.

선생이 무지한 자들을 일깨워

‘신부’라는 옷을 입혀 주며

오늘 이 시간까지도

선생의 몸부림으로 이끌고 있다.

선생이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

시대 나팔을 불어 주지 못했다면

너희가 어찌 나 예수의 심정을 알았겠으며

어찌 나의 때를 알 수 있었겠느냐.

사랑하는 섭리 신부여!

깊이 기도하는 자에게 선생이 보일 것이고

깊이 기도하는 자에게 선생의 심정이 올 것이다.

사랑하는 섭리 신부들아,

지치지 말고 나를 찾으라.

끝까지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난 머물게 된다.

사랑한다.